

히거)의 誤刻일 것임을 말한일이 있는데, 그뒤 印刷에 붙일 때는, 그와 對句인 「일위사니」와 步調를 맞추기 위해서 「꼴히야」쪽을 取하였다. 그러나 古板本과의 對照로, 「꼴히어」가 맞음이 判明되었다.

그리고 「하봉사」의 現代語形이 「혼자」인지, 「홀로」인지, 이에 대해서도 다른 意見이 存在한다.

龍飛御天歌의 語學的 價値 (人名·地名)

李 基 文

龍飛御天歌 125章의 國文歌詞는 매우 중요한 中世國語 資料로 이용되어 왔다. 그리하여 言語資料로서의 龍飛御天歌라면 그 國文歌詞만을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一般化되어 있다.

그러나 龍飛御天歌는 이 125章의 歌詞외에도 그 註解 部分에 正音으로 表記된 地名·人名 등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이는 종래 無視되기 일수였으나 言語資料로서 매우 特異한 價値를 가지는 것이다. 이 속에는 國語系 地名·人名 등도 적지 않으므로 中世國語 資料로도 珍重한 것이지만, 女眞語·蒙古語系の 地名·人名등이 또한 적잖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들 言語 特히 女眞語 資料로서도 매우 珍重한 것이다.

龍飛御天歌 註解 部分에 나타나는 正音 表記例는 筆者가 調査한 바로는 모두 173이다.⁽¹⁾ 이들은 前述한 바와 같이 國語系, 女眞語系, 蒙古語系로 分類되며 또 그 混合도 보인다. 이제 이들을 檢討해 보기로 한다.

I. 國語 資料

國語系에는 地名이 가장 많다. 이들은 漢化되지 않은 中世國語 時代의 俗地名을 보여 주는 唯一한 資料로서 우리 나라 地名 研究에 있어 特記할 만한 것이다. 地名외에 擊毬 관계의 語詞가 다섯, 人名이 둘 나타난다. 그 大部分이 흥미있는 考究의 對象이 될 수 있으나 그중에서도 注目할 만한 것으로는 가령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고·마누르 (熊津) 3.15r

이 유명한 地名에 보이는 「고·마」는 熊을 指稱하는 古代 百濟語에 由來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는 정히 中世國語의 「곰」(熊)의 古形인데 그 無比의 重要性이 있다.

(1) 金允經박사의 調査는 174로 되어 있는 바(한글 130호, 1962) 「수양」(垂楊)의 一例가 잘못 포함되었다.

고·마> : 곱

첫째로 주목되는 것은 末母音(아)의 脫落이다. 이것은 國語에 있어서의 末母音의 脫落(apocope)⁽²⁾의 지금까지 발견된 유일한 文證이다. 「고·마」는 바로 日本語 kuma(熊)와 同一한 母音組織(vocalism)을 보여 준다. 둘째로 주목되는 것은 이 末母音 脫落에서 결과된 聲調의 變化다. 이와 유사한 現象은 과거에도 지적된 바 있으나⁽³⁾, 이와 同一한 範疇의 例는 아직 발견된 일이 없다. 이 一例는 國語의 上聲 單音節語의 古代 聲調가 어떠했었음을 示唆해 준다.

(2) *ㅂ>ㅃ의 例들

半母音 j에 後行한 *ㅂ의 唇輕音化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二例가 있다.

·쇠벼·르(淵遷) 3.13 v; ·대밭(竹田) 5,26 r

그리고 다음의 一例로 아마도 여기에 속할것으로 생각된다.

직·벽 : 골(滓甕洞) 1.49 v

(3) *ㄱ>ㅇ의 例들

半母音 j와 子音 ㄱ에 後行한 *ㄱ이 ㅇ으로 變할 分명한 例들을 보여 준다.

벼·애(梨浦) 3.13v; 물·애오·개(沙峴) 9.49v; ·ㄱ·래 : 울(楸洞) 10.19v; 졸·애(照浦) 6.37 v

그러나 다음의 二例는 例外를 構成한다. 어찌하여 이런 例外가 있는 것인지 그 理由는 分명치 않다. 혹시 이들 地名의 形成이 問題의 音韻變化 이후에 속하기 때문일는지도 모른다.

다대 : 골(槌鞞洞) 5.33 v; :돌·개(石浦) 1.38 v

國語系 및 女眞·蒙古語系 人名·地名 등의 表記法을 檢討해 보면 中世國語 音韻論研究에 중대한 暗示를 주는 것이 있다.

(1) 國文歌詞에서와는 달리 插入子音은 ㅅ으로 통일되어 있다. 特히 後行語의 初頭に 表記된 例들이 存在한다.⁽⁴⁾

:션·썰(善竹) 1.47 r

:뒹:심:솔(北泉洞) 2.32 v

마·근·담:솔(防階洞) 5.27 r

(2) 合用並書 「처」의 例.⁽⁵⁾

(2) G. J. Ramstedt, Über die Stellung des Koreanischen, *Journal de la Société Finno-Ougrienne*, 55(1651), p. 53 및 拙稿, On the Breaking of *i in Korean, 亞細亞研究, 2-2(1959), p. 133 참고.

(3) 河野六郎教授가 지적한 「누·리> : 뉘」(世), 「*모·리> : 뉘」(山) 등. 朝鮮學報, 1輯, p. 111.

(4) 이런 表記例들의 重要性에 대하여는 拙稿, 語頭子音群의 生成 및 發達에 대하여, 震檀學報 17호(1955), pp. 232-234 참고.

(5) 이에 대해서도 前掲拙稿, p. 240 참고.

닌취·시(紉出闊失) 7.23 v

(3) 音節末「ㅅ」의 發音을 暗示하는 例.

·골야궤터물(括兒牙火失帖木兒) 7.22 v

十五世紀表記法에 있어서 終聲에 「ㅅ」과 「ㄷ」이 사용되었는데 現代語의 觀點에서 보면 이 差異는 理解하기 어려운 것이다.⁽⁶⁾ 上例에서 終聲 「ㅅ」이 漢字表記의 「失」에 對應함은 注目할 만하다.

(4) 女眞語 및 蒙古語 表記에 사용된 正音 中聲字들의 用例가 그 音價推定에 中대한 資料가 된다.(後述)

II. 女眞語 資料

龍飛御天歌 註解 部分에 女眞族의 蟠居地였던 關北 및 關西의 地名과 女眞族의 人名·職名 등이 나타나는 바, 이들의 語學的 價値는 지금까지 전혀 認識되지 않았었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이미 알려진 女眞語에 관한 資料란 매우 稀少하며 모두 女眞文字와 漢字로 된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資料는 비록 量的으로 많지는 못하나 종래의 資料들이 갖추지 못한 유리한 條件 즉 訓民正音이라는 우수한 音素文字에 의해서 表記되었다는 條件을 갖추고 있어 이들은 일찌기 보지 못한 精確한 女眞語 資料가 되는 것이다.

우리의 資料에서 女眞語 語詞로 확인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女眞語는 W. Grube, Die Sprache und Schrift der Jučen (Leipzig 1896)에서 漢字表記만을 引用한다.

龍歌	女眞語	滿洲語	意味
(1) 투·먼	土滿	tumen	萬
(2) 밍·간	皿干	minggan	千
(3) 탕·고	湯古	tanggû	百
(4) 워·허	斡合	wehe	石
(5) 바·얀	伯羊	bayan	富
(6) 이·란	以藍	ilan	三
(7) 닌취·시	寧住黑	nicuhe	眞珠
(8) 퉁·컨	同肯	tungken	鍾鼓
(9) 인다·호	引答洪	indahûn	犬
(10) 모·로		mulu	山(梁)
(11) 우더·거	兀的厄		野

(1) 1.8 v. 「豆漫투·먼江」註에 「女眞語謂萬爲豆漫, 以衆水至此合流 故名之也」

(6) 拙稿, 中世國語의 特殊 語幹交替에 대하여, 震檀學報 23 호(1962), pp. 132-3.

(2) 7,22 r. 「猛安鳴·간」註에 「猛安千夫長 卽今之千戶也」. Grube, 前掲書에 는 千戶를 女眞語로도 「千戶」라 한다고 되어 있다.

(3) 7.23 v. 「唐括湯·고」註에 「唐括猶言百戶也」. Grube, 前掲書에 는 百戶는 女眞語로도 「百戶」로 되어 있다.

(4) 7.23 r. 「斡合窩·허」註에 斡合 地名 有今鏡城府南百二十里 其地有圓石屹立 高可二百餘丈 西有猛安川 東流過立石下 又北流入于海 其俗謂石爲斡合 故因名其地焉」

(5) 7.24 r. 「南突阿刺哈伯顏 남·돌아라·카바·얀」註中에 「其俗稱富人爲伯顏」

(6) 7.21 V. 「移闌豆漫이·란투먼」에 대하여 「斡朶里 火兒阿홀·아 托温타·온 三城 其俗謂之移闌豆漫 猶言三萬戶也 蓋以萬戶三人 分領其地 故名之」

(7) 7.23 v. 「紉出闊失년취·시」註에 「地名 其地有大澤 產眞珠 其俗謂眞珠爲 紉出闊失 故因名其地焉」. 女眞語·滿洲語의 語形에 비추어 보아 -si 는 複數接尾辭인 듯하다.

(8) 1.8 v. 「童巾통·컨」. 이에 대해서는 世宗實錄 地理志에 「鍾城郡 胡人謂鍾爲童巾 府有童巾山故名之」라 있다.⁽⁷⁾

(9) 7.23 r. 人名 「朱胡引答忽주·후인다·호」가 보인다. 비록 音相으로는 一致하나 「인다·호」가 「犬」을 의미하는 단어였는지는 未詳이다.

(10) 4.21 v. 「稷山·피모·로」. 이 「모·로」는 종래 國語 語句라고 생각되어 왔으나 女眞語 語詞라고 보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11) 1.7 r. 「兀狄哈우디·거」註에 「我國之俗通稱斡東等處兀狄哈 兀狄哈及女眞 諸種爲野人」

이밖에 많은 人名·地名이 있다. 이들 資料에서 다음과 같은 증대한 사실들이 밝혀진다.

첫째, 傍點의 位置가 女眞語의 tone 을 보여 준다. 이것은 지금까지에 발견된 女眞語의 tone 에 대한 唯一한 資料가 된다. 上記한 語詞들뿐 아니라 모든 女眞系 固有名詞가 語末 音節에 去聲點을 가지고 있으므로 보아 女眞語는 語末 音節에 high tone 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南통구스諸語의 狀態와 同一하다. 즉 콜더語나 우데헤語는 語頭 音節에 Druck 를, 語末 音節에 musikalischer Hochtone 을 가지고 있다.⁽⁸⁾

둘째. 女眞語 母音體系에 대한 증대한 사실을 밝혀 준다. 즉 종래 이용되어

(7) 詳論은 拙稿, 女眞語 地名攷, 文理大學報 6卷1號(1958), p. 141-143 참고.

(8) J. Benzing, Die tungusischen Sprachen, Versuch einer vergleichenden Grammatik, Abh. d. Geistes und Sozialwiss. Klasse, Akademie d. Wiss. u. d. Literatur, Jhg. 1955, Nr. 11, Wiesbaden 1956, S. 51.

은 資料들에 의하면 그 表記가 不精確하여 女眞語도 滿洲語와 같이 /u/만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어 왔는데 우리의 資料는 女眞語가 /ü/도 가지고 있었음을 알려 준다. 즉 종래의 資料에서 /u/인 것이 여기서는 「오, 우」 두 文字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매우 주목할만한 사실이다. 「오」와 「우」는 각각 /u/와 /ü/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워」가 보이는 바, 이는 /ö/의 存在를 말해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일찌기 女眞 金石文의 研究에서 한 日本學者는 屈折 또는 語幹形成接尾辭에 있어 母音調和上の 變異形(陽性形과 陰性形)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두 文字가 사용된 사실을 지적한 일이 있었다. 그중에는 處格의 陽性形 -do-에 대한 女性形, 被動語幹形成 接尾辭의 陽性形 -bu-에 대한 女性形에 해당하는 特殊한 文字가 있다. 종래대로 女眞語 母音を /aeiou/의 다섯으로 보아서 이들 女性形의 再構는 불가능하므로 그는 /ö, ü/ 두 母音이 女眞語에 더 있었으리라는 假說을 세워 이들 女性形을 각각 -dö, -bü-로 兩構했던 것이다.⁽⁹⁾

이런 假說을 龍飛御天歌의 資料는 證明해 준다. 위의 語詞 目錄은 「우는 /ü/를, 「오」는 /u/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해야만 合理的으로 해결된다. 따라서

(1) 투먼 tümen

(8) 퉁컨 tüngken

(11) 우더거 üdige

로 해석되며 한편

(3) 탕고 tanggu

(9) 인다호 indaxu

(10) 모로 mulu

로 해석된다. 그리고 「워」는 /ö/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¹⁰⁾

(4) 워허 öxe

(7) 닌취시 ninčkösi

이러한 結論은 中世國語의 母音體系의 研究에도 큰 빛을 던져 준다. 즉 「오, 우」의 진정한 推定케 하는데 가장 확실한 證據를 제공하는 것이다.⁽¹¹⁾

Ⅲ. 蒙古語 資料

蒙古語 語詞로 확인되는 것은 다음의 둘뿐이다. 이들은 말할 것도 없이 中

(9) 安馬彌一郎, 女眞文金石志稿, 京都 1943, pp. 85-87.

(10) 中世蒙古語에서 中世國語에 借用된 語詞들을 보면 蒙古語의 /ö/는 國語에서 「워」가 되었다. Cf. 拙稿 Mongolian Loan-Words in Middle Korean, Ural-Altaiische Jahrbücher 近刊號 참고.

(11) 中世國語의 母音體系에 대한 최근의 研究로는 金完鎭, 國語 母音體系의 新考察, 震檀學報 24 호, 1963 참고.

世蒙古語를 反映하는 것이다.

龍歌	蒙古文語	中世蒙古語	意味
(1) 바·톨	baratur	bayatur	勇
(2) 터·물, 터·물	temür	temür	鐵

(1) 7.10 r에 「阿其拔都아기바·톨」이란 人名이 보이며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註가 있다. 「阿其 方言小兒之稱也 拔都 或作拔突 蒙古語 勇敢無敵之名也」

(2) 1.43 r에 「高時帖木兒고시터·물」, 5.48 r에 「兀魯帖木兒·우로터·물」, 7.21 V에 「來溫猛哥帖木兒가·온명거터·물」, 7.22 r에 「古論豆蘭帖木兒고·론두란터·물」, 7.22 V에 「括兒牙火失帖木兒골·야킷터물」 등이 보인다.

이밖에 族名으로 「오랑·캐」가 보이는 바 이는 蒙古語 起源의 것이며(蒙古文語 uriyangqai) 또한 地名으로 「하·란」(지금의 咸興)이 보인다.⁽¹²⁾ 이들은 數例에 지나지 않지만 역시 中世蒙古語 研究에 귀중한 資料가 된다.

첫째, 여기서도 역시 中世蒙古語의 tone의 位置가 밝혀진다.⁽¹³⁾

둘째, 여기서 母音轉字도 위에서 女眞語의 경우에 내린 結論을 支持해 준다. 다만 「터·물」이 例外的인 바, 이는 「터·물」 즉 temür의 弱化形인 듯하다.

그리고 이들이 中世國語의 母音體系 研究에 좋은 資料가 됨은 위의 女眞語의 경우와 같다. 끝으로 (1)의 中世蒙古語 ba'atur의 실제 발음은 batur인데 이 高長이 國語 表記에서는 無視되었다는 사실을 附言해 둔다.

龍歌의 文體論

— 序說을 위하여 —

金 烈 圭

※ 本 發表는 錄音이 없되어 要約으로써 代한다.

龍歌를 文體論的으로 다루어 나갈 때 方法論上으로 于先 두 가지의 制約이 不可避하게 된다.

이른바 文體徵候는 表現의 自由性과 自然性을 前提로 하여야 하는 것인데 龍歌는 이 點에서 論難의 餘地가 있다.

漢詩가 먼저냐 國文歌辭가 먼저냐 하는 문제가 있기는 하나 그 어느 쪽이 先

(12) 1.47 v에 「吹螺赤츄라·치」가 보이며 그 註에 「稱吹角人爲吹螺赤」라고 있는 바, 이것도 蒙古語인 듯하다.(蒙古文語 čuyurči) 後考를 요한다.

(13) 이에 대한 詳論은 前掲, 拙稿 참고.